

## 근대전환기 교육학 교과서에 나타난 도덕· 윤리교육 연구\*

오지석 HK교수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 I. 들어가는 말

### II. 교육학 교과서와 근대 수신 교과서 사이

### III. 윤리, 도덕학, 그리고 윤리·도덕교육

1. 1900년대 번역 교육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윤리, 윤리교육
2. 1900년대 수신/윤리 교과서

### IV.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7.12>

\* 이 논문은 송실대학교 2019년 교내학술연구비(신임교수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 ABSTRACT •

---

A Study on Moral and Ethical Education in Educational Textbooks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HK Prof., O, Jie-seok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was a hybridization between the educational system introduced from the West and the 'morality and ethics' formed by the influx of new knowledge in the process of academic formation in the transition period of Korea, focusing on the pedagogical textbooks of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such as Choi Kwang-ok's 『教育學』, Yoo Ok-kyum's 『簡明教育學』, and Yoon Tae-young's 『師範教育學』. In addition, he traced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Confucian tradition and the new Western thought, which was the culmination of the cultural change of the modern era, as it was not simply a unilateral influx and transplantation, but a subjective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ntroduction of Western pedagogy in textbooks according to the interdisciplinary system of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and the concept of reception in traditional Confucianism. The significance is that the concept of 'ethics' was derived.

**Key words:** Modern Transition, Textbooks of Pedagogy, Self-cultivation(修身)  
Textbooks, Moral, Ethics

---

## I. 들어가는 말

한국 근대 전환기 문화 상황은 전통문화가 서양사상과 학문을 만나면서 보여준 수용과 충돌, 변용과 혼용되어 어느 하나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근대 전환기의 문화변동은 외래 문명의 일방적 이식과 수용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충돌과 갈등, 수용과 저항 사이의 긴장과 혼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근대전환기에는 이를 돌파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와 실천이 있었으며, 이것을 ‘문화의 메타모포시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유교적 전통이 모든 사회문화의 전범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사회 전반에 외래 문명이 유입되면서 긴장과 혼란, 성리학적 위계적 질서를 기반으로 안정과 문화를 이끌었던 사회는 전통과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시기는 조선 정부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에 조사시찰단과 중국에 영선사를 파견한 1881년, 1882년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과 푸트 공사 부임의 답례로 구미 사절단인 조선 보병사를 파견한 1883년 이후부터 1910년까지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전통적인 교육체제나 교육 질서에서 근대교육으로 개편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sup>1)</sup>이기 때문이고 학교 도덕 교육이 탄생<sup>2)</sup>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근대 전환기의 교육학 교과서와 수신 교과서는 서양 사상에 바탕을 둔 규범 또는 윤리의 영역을 소개하고 유교적 전통과 서구의 교육과 윤리 사상 사이의 충돌이 가장 치열한 현상이었다.<sup>3)</sup> 그래서 근대지향적

- 
- 1) 서재복, “한국 개화기 근대학교의 교육이념 연구,” 『교육종합연구』 7/2(2009), 90.
  - 2) 김민재, 『학교도덕교육의 탄생-1894~1910년 근대개몽기의 수신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 케포이북스, 2014), 3; 이명준, “개화기 전후의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사적 고찰,” 『교육철학』 43(2008), 65~87.
  - 3)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교육』 69(2020), 185~208.

인 지식인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서양 교육학과 수신서 교과서의 소개와 유교 윤리 전통과 다른 도덕 교육이 오늘 윤리학과 도덕 교육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건너지 못하는 간극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근대 전환기 교육학 교과서와 수신 교과서에 나타난 윤리·도덕 교육’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교육학 차원과 윤리학 차원 그리고 윤리교육 차원에서 진행 되어왔다. 교육학 차원에서는 근대 전환기 교육학과 윤리(도덕)가 분리되지 않고 교육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고<sup>4)</sup>, 근대 전환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이 ‘윤리’와 ‘도덕’ 개념의 생성과 전환이나 의미장(意味場)<sup>5)</sup>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에 주목한 연구이다.<sup>6)</sup> 대체로 이러한 연구는 외래 사상의 유입으로 서양의 윤리학이 액제가 아니라 ethics로 소개되고 ‘윤리’는 단어가 번역어로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오상’ ‘오륜’, ‘수신’ 등의 개념이 더 이상 학문영역에서 서서히 자리 잡지 못하면서 유교 윤리가 쇠퇴하는 과정과 같은 궤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4) 허재영, “근대 계몽기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향,” 『국어사연구』 13(2011), 185~209; 최정희, “애국계몽기 가정교육론의 성격 연구-근대 교육학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5/2(2023), 107~131; 최윤, “근대 한국 師範 개념의 기우너과 변용,” 『역사교육연구』 46(2023), 309~351; 전성규, 김수경, “근대 헤르바르트 학과 교육학 수용의 한 양상-유근의 『교육학 원리』와 그 ‘저본’으로서 나카지마 한지로(中島半次郎)의 『교육학원리』,” 『사이』 29(2020), 185~226; 허재영, “근대 계몽기의 교과문과 교육학, 교수법 자료 연구,” 『한국민족문화』 45(2012), 205~235; 한용진, 김자중, “근대 ‘교수’ 개념의 수용에 관한 개념사적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22/4(2016), 43~6 등이 있다.

5) 차미란, 위의 글, 186.

6) 이런 경향의 연구는 양일모, “유교적 윤리 개념의 근대적 의미 전환,” 『철학사상』 64(2017), 3~27; 이행훈, “1900년대 전후 도덕 개념의 의미장-수신, 윤리교과서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2(2013), 161~196; 이혜경, “근대중국윤리개념의 번역과 변용,” 『철학사상』 37(2010), 95~129; 오지석, “오랑캐에게 예절을 배우다! 서양 기독교윤리에 대한 무시·배척을 넘어서,” 『문화와 융합』 42/10(2020), 131~152 등이 있다.

근대 전환기 ‘교육’과 ‘윤리’개념 전환에 천착해서 분석하는 관점이 주로 교육학과 철학 분야에서 진행되었다면, 도덕·윤리 교육 분야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다소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윤리 교육 주제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 도덕 교육과 현대의 도덕 교육 사이의 연속성을 드러내고자 근대 전환기 근대 학제의 수신 교과서의 의의에 집중한다.<sup>7)</sup> 이런 경향은 학문으로서 도덕·윤리보다는 학교 교과목으로서의 도덕 교육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전통 교육과 어떤 역사적 연속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대 전환기의 수신 교육이 전통적인 도덕교육과 현대의 교과교육으로서의 도덕 교육을 연결하는 매개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전환기의 수신교육은 일제 강점기의 수신 교육과 그 성격이 명백히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관점은 각각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중요성이 있지만, 근대전환기에 간행된 교육학 교과서와 수신 교과서에서 다루는 윤리·도덕의 내용을 분석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

7) 고대혁, “도덕 교육의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 탐색의 가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근대수신교과서 1·2·3,」 「소명」211(2011), 김민재, “근대 초등용 수신 교과서에 나타난 가치교육의 변화연구,” 「초등도덕교육」36(2011), 255~284; 김민재, “교과교육학:근대계몽기 중등용 수신교과서의 도덕교육적 시사점 연구,” 「윤리교육연구」31(2013), 161~188; 김민재, “근대계몽기 여학생용 초등 수신서의 특징과 한계 연구,” 「초등도덕교육」43(2013), 29~60; 김우봉, “근대 한,일 수신교과서에 제시된 ‘모범인물’ 비교 연구: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43(2008), 185~206; 박학래, “신영해 편술의 『윤리학교과서』에 대한 재검토-도덕교육 학계의 관련 논의에 유의하여,” 「도덕윤리교육」72(2021), 193~222; 유종열, “개화기 수신교과서에 나타난 시민권 분석-신혜영 편술, ‘윤리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30/1(2023), 55~67; 박정심, “근대 수신교과서의 ‘수신’에 대한 비평적 성찰,” 「동양철학연구」91(2017), 43~72; 박균섭, “수양공부론, 근대수신담론, 인성교육론의 계보학,” 「인격교육」16/1(2022), 69~97; 박균섭, “근대수신담론의 발생사 비판,” 「공존의 인간학」9(2023), 253~294;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교육」69(2020), 185~208. 등이 있다. 김민재의 연구는 이 방향을 연구를 주도하고 있고 차미란의 연구는 도덕윤리교육에 특화되어 있다.

는 이 점에 주목하여 근대전환기의 ‘교육학’교과서와 ‘수신’교과서 특히 1900년대 사립학교에서 간행한 ‘교육학’ 교과서와 ‘수신’교과서에서 집중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교육학교과서와 수신교과서는 학문으로서의 윤리학을 소개하고 도덕교육을 실현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 II. 교육학 교과서와 근대 수신 교과서 사이

우리나라에 서양교육과 서양 윤리에 관한 서적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파견된 부경사행(赴京使行)을 통해서였다. 부경사행원들이 입수한 알레니(J. Aleni)의 『서학범(西學凡)』, 『직방외기(職方外紀)』를 통해 서양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윤리와 교육 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근대 서양 교육(학)과 서양 윤리학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소개된 시점은 근대 전환기 또는 근대 계몽기이다. 대체로 이 시기는 갑오개혁이 있었던 1894년부터 한일병탄이 시작된 1910년이다. 이 시기는 개항과 더불어 밀려오는 서구 제국의 압력, 서양 문물과 사상의 유입, 제국주의 열강의 압력, 외래의 문명과 사상의 유입, 개화파와 척사위정파의 갈등과 충돌로 야기된 사회의 격변과 혼란에서 벗어나 근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획이 새롭게 시도되고 실천되었다. 치열한 생존경쟁과 우승열패의 시대에 동서양 열강의 침탈에 대응하여 민족의 역량을 축적하고 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sup>8)</sup>는 인식이 당시 개화파 인사나 척사위정파를 넘어서 조선인들 사이에 팽배하였다.

이 시기는 교육면에 있어서도 한국 교육의 전통을 이어온 봉건 교육이 근대교육으로 개편·전환됨으로써 교육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 시기를 ‘교육개혁의 시기’<sup>9)</sup>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한성사범학교

8)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서울: 문음사, 1996), 9.

와 보성전문학교 등 각종 근대식 관·공·사립교육기관이 설립되었으며 근대적 교과목과 서양 학문이 급속도로 도입·보급되기 시작했다.<sup>10)</sup>

특히 1894년 8월 학무아문고시(學務衙門告示)에서는 “나라에서 소학교와 사범학교 설립을 분명히 천명하였다.”<sup>11)</sup> 소학교와 사범학교의 설립 준비를 하였다.<sup>12)</sup> 그해 10월 학무아문은 갑오개혁의 첫걸음으로 한성에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개설하였다. 그 이듬해 4월 관제개편으로 학무아문이 학부(學部)로 바뀌고 한성사범학교로 내용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sup>13)</sup> 1895년 교육개혁에서는 한성사범학교 관제가 다른 여러 학교보다 빠른 4월 16일로 칙령 76호로 제정되었다. 이는 근대적인 학교법제에 따른 최초의 학교라는 것을 말해준다.<sup>14)</sup> 또한 이는 소학교 교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서구 교육학과 수신교과가 한국교육계에 보급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sup>15)</sup>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부는 1895년 7월 「한성사범학교규정」을 제정하여 사범학교 교육 요강을 알렸다. 본과 학습과목은 다음과 같다.

수신 : 인륜도덕의 요지 및 그 교수법

교육 : 교외 교육의 연혁 및 저명한 교육가의 전기와 교육 및 교수 원리를 가르치는 것과 함께 부속소학교에서 실제수업방법을 연습한다.

국문 · 한문 : 강독

역사 : 본국 및 세계역사

지리 : 본국 및 세계의 정치 지리와 지문 초보

9) 서재복, “한국 개화기 근대학교의 교육이념 연구,” 91.

10)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9.

11) 박상만, 『한국교육사 중』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1956), 36.

12)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61.

13) 古川 昭, 이성옥 역,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서울: 경인문화사, 2006), 141.

14)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61.

15) 위의 책, 65.

- 수학 : 산술 및 대수기하의 초보와 교수법
- 물리 : 물리상의 긴요한 현상과 정률
- 화학 : 보통화학상의 현상, 긴요한 원소와 무기화합물의 성질
- 박물 : 동식물의 생리와 위생
- 습자 : 해서 행서 초서의 3체 및 그의 교수법
- 작문 : 일용서류 기사문 및 논설문
- 체조 : 보통체조 및 병식체조(兵式體操)<sup>16)</sup>

또한 1906년 8월 27일 칙령 제40호 「학부직할학교 및 공립학교관제」에 따라 그 해 9월 1일부터 교명이 관립한성사범학교로 변경되었다. 학부는 1906년 9월 「사범학교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학과목 및 요지에 나타난 수신과 교육학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범학교 본과 교육과정표<sup>17)</sup>

학년 교과목	시 수	제1학년	시 수	제2학년	시 수	제3학년
수신	1	인륜도덕요령	1	인륜도덕요령	1	인륜도덕요령
교육	3	교육의 원리심리논리의 개요	3	전학년교수의 원리	3	전반적 교육법령 및 학교관리법 후반년 실제수업

위의 본과 교육과정표에 따르면 각 과목은 매주 수업 시수를 알 수 있는데 교육이 3시간인데 비해 수신은 1시간이다. ‘교육’에서는 교육원리·교육심리·교수법·교육법령과 학교관리에 관해 학습하고 최종 학년에서 반년간 실습을 경험하게 하여서 사범교육을 완결하고 있다.<sup>18)</sup>

16) 古川 昭,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144~145.

17) 위의 책, 160.

18) 위의 책, 161.

1895년 규칙 제4조 ‘사범학교 교육의 요지’에서 정신교육이나 덕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내용이라하여 준국애국과 충효 등의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한국사회에서는 애국계몽운동과 구국운동, 국권회복 의식을 기르고 구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구상이 잘 드러난다.

수신교과는 가장 중요하게 다뤘다. 1895년 규정이 단지 실천 도덕을 요지로 하는 것만을 규정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덕사상을 함양하여 실천도덕을 장려하여 장래 교사의 자질을 배양하고 더불어 실제 수업에 준비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중점을 효제충신(孝弟忠信)·수신제가(修身齊家)·충군애국(忠君愛國)·이용후생(利用厚生)에 두었다.<sup>19)</sup>

〈구 규칙〉 수신 : 궁행 실천을 요지로 하고 따라서 이론에 편중하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

〈신 규칙〉 수신은 도덕상 사상 및 정조를 양성하고 실천수행을 권장하여 사표가 되는 위의를 구체적으로 하여 보통학교 수신교수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그 교수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수신은 효제충신을 주요 요지로 하고 처음은 학원일상의 행위에 곤란하여 도덕 요령을 교시하고 또한 예법을 교수하여 나아가 수신제가의 길을 가르쳐 충군애국의 의의를 바르게 하고 공덕을 중하게 여기고 이용후생의 길을 항상 알려 현행제도에 관한 필수 사항의 대요를 교수한다.<sup>20)</sup>

1906년 8월 보통학교령 및 보통학교시행규칙이 공포되었는데 제9조 보통학교 각 교과목 교수 수지에 나오는 수신 교과목은 “학도의 덕성을 함양하여 도덕의 실천을 지도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실천에 적합한 근처의 쉬운 사항에 따라 품격을 높이고 지조를 견고히 하여 덕의를 중요시하

19) 위의 책, 168.

20) 위의 책, 169.

는 습관을 기르는 것에 힘쓸 것”<sup>21)</sup>이라고 되어 있다.

학부가 1899년 4월 4일 칙령 제11호로 「중학교관제」를 공포하고서, 1900년 9월 3일 「중학교 교칙」을 제정하면서 심상과의 교과목으로 윤리, 독서, 작문, 역사, 지리, 산술, 경제, 박물, 물리, 화학, 도화, 외국어, 체조를 제시하였고<sup>22)</sup>, 고등과에 독서, 산술, 경제, 박물, 물리, 화학, 외국어, 법률, 정치, 공업, 농업, 상업, 의학, 측량, 체조 과목을 두도록 정해 놓고 있다.<sup>23)</sup> 소학교의 ‘수신’교과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중학교에서는 ‘윤리’교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5년 통감부는 「보통학교령」을 반포하고 1906년 8월 27일 「고등학교령」이 공포한다.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때 제정된 「고등학교 시행규칙」에서는 고등학교 본과 교과목으로 수신, 국어, 한문, 일어, 역사, 지리, 수학, 박물, 물리, 화학, 법제경제, 도화, 음악, 체조를 제시하고 있다.<sup>24)</sup> 수신교과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고등학교령 시행규칙」 제5조 고등학교 각 학과목의 교수요지 1. 수신: 성실 온화한 품성을 기르고 궁행(躬行) 실천을 주로 하여 언론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sup>25)</sup> 〈고등학교교육과정표〉에 따르면 고등학교 4년 동안 수신의 시수는 4시간 즉 매주 1시간씩 배우도록하였고 ‘도덕요령’이라는 내용으로 가르쳤다.<sup>26)</sup> 통감부 설치 이후 보통학교와 고등학교의 선두 교과로 지정된 수신 교과에 교육이 통감부의 통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sup>27)</sup> 학부는 미치지 추조를 중심

21) 위의 책, 89.

22)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89.

23) 위의 글.

24) 古川 昭,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191.

25) 위의 책.

26) 위의 책, 193.

27)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90.

으로 보통학교용 교과서의 편찬에 노력을 기울여 1907년 수신서 전2권을 완성하여 발간하였다.<sup>28)</sup> 대한제국 말기에 애국계몽운동과 교육구국운동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민족주의 계열의 사립학교에서는 통감부가 정치적 의도에서 수신 교과를 강조한 것에 반발하여, 수신 교과를 직접 편찬하여 교과서로 사용하였다.<sup>29)</sup> 교과목의 명칭은 동일하였지만 수신 교과의 내용과 방향에서 통감부가 강조한 수신 교과와의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교과서 검정과 인가에서 잘 드러난다.

학부는 1908년 8월 「사립학교령」을 제정하여 교과서 편찬 작업을 서두름과 동시에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을 제정하고 교과서 검정을 정치, 사회, 교육 3개의 관점으로 심사 기준을 세워 교과서 검정과 인가하였다.<sup>30)</sup> 수신 저작의 경우 자국의 현상을 걱정하여 자주독립을 논하고 배일사상을 고취하여 호연장담하고 배외적인 애국심을 표출하는 것으로 판정받아 검정 불합격과 조사 중인 것이 많았다.<sup>31)</sup> 1909년 5월 교과용 도서 검정 상황을 살펴보면 수신 12권 출원 3권 인가 불인가 5권, 조사중 1권, 교육의 경우 출원 1, 인가 1, 조사중 1권으로 나온다.<sup>32)</sup>

근대전환기 전환과정은 유교적 전통과 단절하고 외래 문물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교적 전통과 서양의 새로운 사상 사이의 긴장과 충돌 속에서 양자의 공존과 조화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대전환기 근대 학제에 ‘교육(학)’, ‘수신’과 ‘윤리’교과의 등장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sup>33)</sup>

28) 古川 昭,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134.

29) 차미란, 같은 글, 같은 면.

30) 古川 昭,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132.

31) 古川 昭, 위의 책, 134.

32) 古川 昭, 위의 책, 133.

33) ‘수신’이라는 용어와는 달리, ‘윤리’ 또는 ‘윤리학’은 서양 용어 ethics의 번역어이다.

교육 현장에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이 교과서이다. 대한제국 말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한성사범학교와 보성전문학교 등 각종 근대식 관·공·사립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으며 근대적 교과목과 서구 학문이 급속도로 도입·보급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해외 유학을 통해 형성된 신지식인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sup>34)</sup> 이들이 서양의 학문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결과가 1906년에서 1910년 사이에 교육학 교과서와 ‘수신’ 또는 ‘윤리’ 교과서의 활발한 출판으로 드러난다. 이 또한 근대적 교육 제도의 도입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육학과 수신과 윤리가 교과목으로 정착되고 과목의 교과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sup>35)</sup> 이 시기에 간행된 교육학과 수신/윤리 교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육학

	저 자	책 이름	출판사	간행 연도
1	普成館(편역)	『家庭教育』	보성관	1907
2	운태영(역술)	『사범교육학』	보성관	1907
3	최광옥(역술)	『교육학』	안악면학회	1908
4	金祥演(찬술)	『신찬보통교육학』	右文館	1908
5	俞鈺兼(역술)	『간명교육학』,	右文館	1908
6	任璟宰	『쇼오교육』	徽文館	1908
7	진희성(역술)	『신편소학교수법』	義眞社	1908
8	한성옥(역술)	『학교관리법』	보성관	1908

개화기에 ‘윤리’라는 용어는 수신, 도덕 등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사용되었다.

34)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9.

35)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90.

〈표 3〉 수신/윤리 교과서

	저 자	책 이름	출판사	간행 연도
1	휘문의숙(편)	『중등수신교과서』	휘문관	1906
2	휘문의숙(편)	『고등소학수신서』	휘문관	1907
3	오상술(지), 안중화(역)	『초등윤리학교과서』	광학서포	1907
4	학부편찬	『보통학교 학도용 수신서』	도교, 삼성당	1907
5	윤용구	『중등수신교과서』		1907
6	유근	『초등소학수신서』	광학서포	1908
7	신해영	『윤리학교과서』	보성관	1908
8	진희성	『보통교육국민의법전』	의진사	1908
9	박정동	『초등수신서』	동문사	1909
10	노병선	『녀자소학수신서』	박문서관	1909
11	안중화	『초등수신교과서』	광학서포	1909
12	휘문관	『보통교과수신서』	휘문관	1910

위의 목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 교육학 교과서와 수신 교과서 편찬은 학부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각종 사립학교 원 양성기관의 교원교육과 각종 사립학교의 수신 교과 교육을 위하여 제작되었다.<sup>36)</sup> 윤태영의 「사범교육학」, 최광옥의 「교육학」, 유옥겸의 「간명교육학」, 그리고 유근의 「초등소학수신서」, 휘문의숙에서 편찬한 「중등수신교과서」와 「고등소학수신서」, 보성관에서 편찬한 신해영의 「윤리학교과서」 등 모두 여기에 속한다. 학부 편찬 교과서를 제외한 교육학 교과서와 수신 교과서들은 공통적으로 그 편찬 목적을, 신지식을 배워서 힘을 기르는 ‘자강’, 국가의식의 고취를 통하여 일제의 간섭과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애국’에 두고 있다.<sup>37)</sup> 통감부는 1908년 「사립학교령」

36) 위의 글.

37) 조연순·김정준·김형목·김은희·정혜영, 『한국 근대 초등학교의 발전』(서울: 교육과학사, 2005), 50, 180-213; 차미란, 위의 글, 191.

에서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학부가 편찬한 것이나 또는 학부대신의 검정을 통과한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사립학교에서 그 밖의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과서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학부 검정 발행 교과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학 교과서는 학부에서 출간된 것이 없었다. 학부의 교육학 교과서인 『보통교육학』은 1910년이 되어서야 출간되었다. 교육학 교과서 목록에서 불인가와 발매 및 반포 금지도서로 지정된 서적은 윤태영 역술의 『사범교육학』(1907)과 임경재의 『쇼오교육』(1908) 그리고 진희성 역술의 『신편소학교수법』(1908)이다. 수신 교과서 가운데 발매 금지된 교과서는 ‘초등용 수신교과서’로 오상술(저)·안중화(역)의 『초등윤리학교과서』(1907), 유근의 『초등소학수신서』(1908), 노병선의 『녀자소학수신서』(1909)와 중등용 수신교과서인 휘문의숙(편)의 『중등수신교과서』(1906), 휘문의숙(편)의 『고등소학수신서』(1907) 그리고 신해영의 『윤리학교과서』(1906, 1908)이다. 두 학문 분야에서 검정에 통과하지 못한 교과서는 교육학 3종, 수신 교과서는 6종 총 9종이다. 1909년에는 「출판법」을 공포하고 1910년 11월에는 각 급별 학교의 교과서를 몰수하여 총 39종의 교과서를 발매 금지 시킨다.<sup>38)</sup>

근대전환기의 ‘교육학’과 ‘수신’ 교육에서 주목할 것은 민간이 주도한 사립교원양성소 또는 사범과에서 시행되었던 교육학 교과서 속에서의 ‘윤리학’ 또는 교육학의 인접학문으로서 윤리학과 도덕교육 방법과 사립학교에서의 수신 교과 교육의 내용 속에서 문화의 메타모포시스적 흐름을 가름하는 좋은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대 전환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외래 문명이나 사상의 강제 이식이나 굴욕적 수용이 아니라 조선

38)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91.

문화의 전통과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며 외래 문명과 서구의 근대적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적극적 실천<sup>39)</sup>의 모습이다. 그러나 번역을 통한 외국사상의 유입과 수용이라는 모습과 유교 전통을 지속하려고 하면서 서양 근대사상을 수용하려는 시도에서 긴장과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전통적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라는 근대 교육환경에서 도덕교육이 탄생하였다는 점을 주시하면서 윤태영의 『사범교육학』, 최광옥의 『교육학』, 유옥겸의 『간명교육학』과 신해영의 『윤리학교과서』와 휘문의숙의 『고등속학수신서』 그리고 유근의 『초등소학수신서』를 중심으로 근대전환공간의 근대학교에서 벌어진 서양학문의 수용과 유교전통의 덕목을 담은 도덕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자.

### III. 윤리, 도덕학, 그리고 윤리·도덕교육

#### 1. 1900년대 번역 교육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윤리, 윤리교육

1906년부터 계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다수의 근대 교육학 관련 저작과 논문이 등장하여 이른바 ‘번역교육학(翻譯教育學)’시대가 된다.<sup>40)</sup> 1906년부터 계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수많은 사립학교와 사립교원양성기관이 설립되었다. 이것은 관립한성사범학교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스스로 각종 사립사범학교, 사범강습소, 특별과 등을 설치하여 교원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sup>41)</sup> 1906년 이후 보성관과 우문관을 비롯한 여러 민간 출판사들은 다수의 교육학 서적도 출판한다. 교육학 교과서는 1907년에서 1908년 사이에 모두 민간 출판사에서 펴냈다. 이 시기의 교육학 교과서들은 모두 일본 서적의

39) 위의 글, 192.

40)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123.

41) 위의 책, 108.

〈표 4〉 근대전환기 교육학 교과서 및 체제와 구성

저자	책 이름	체제 및 내용 구성	
윤태영 (역술)	『師範教育學』 (1907)	제1편 서론	1장 교육의의, 2장 교육의 기능, 3장 교육필요, 4장 교육한계, 5장 교육술 及 교육론, 6장 교육학의 성질 及 타 學科
		제2편 교육목적	1장 교육목적에 관한 제의견, 2장 역사상 개관, 3장 교육주의 10칙, 4장 귀결
		제3편 교수론	1장 교수목적, 2장 교재선택 及 분류, 3장 교재배열 及 통일, 4장 교수방법
		제4편 훈련론	1장 훈련목적 及 순서, 2장 훈련 교수 체육의 관계, 3장 개성 及 훈련, 4장 훈련상에 가정 及 학교, 5장 유희, 6장 명령 及 상벌, 7장 교육자의 성격
		제5편 학교교육론	1장 교육종별, 2장 학교계통, 3장 특수교육
최광옥 (역술)	『教育學』 (1907)	제1편 총론	1장 교육의 의의, 2장 교육의 필요, 3장 교육의 제한
		제2편 목적론	1장 교육의 목적, 2장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제3편 방법론	1장 교수, 2장 훈련, 3장 체육
		제4편 가정교육	1장 가정교육의 가치, 2장 가정과 학교의 연락
유옥겸 (역술)	『簡明教育學』 (1908)	제1편 총론	1장 교육의 의의, 2장 교육의 기능, 3장 교육의 한계, 4장 교육의 필요, 5장 교육의 學 及 術, 6장 교육학과 타 과의 관계
		제2편 목적론	1장 교육의 목적에 관한 諸主義, 2장 실지와 이상, 3장 개인과 사회, 4장 도덕적 생활, 5장 교육특수의 목적
		제3편 방법론 1 교수론	1장 교수의 의의 及 목적, 2장 흥미, 3장 교안의 의의, 4장 교재의 선택, 5장 교재의 배열, 6장 교재의 연관, 7장 교수세목 及 일과안, 8장 교수의 단계, 9장 교수의 방식, 10장 교수를 확실케 하는 방법
		제4편 방법론 2 훈육론	1장 훈육의 목적, 2장 훈육과 타 교육방법의 관계, 3장 억제와 유도, 4장 훈육의 통일, 5장 훈육의 방편
		제5편 방법론 3 양호론	1장 양호의 목적, 2장 양호의 주요되는 방편, 3장 양호일반의 주의
		제6편 체제론	1장 교육자 2장 교육의 처소

번역본으로 보인다. 또 당시 교과용 도서 검정 규정에 의해 여덟 권의 교육학 교과서 가운데 한 권은 발매금지 처분을, 그리고 두 권은 불인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다섯 권은 학부검정 혹은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교과서들은 1910년 강제병합 이후에 모두 검정 무효나 불인가 처분을 받게 되었다. 교육학 교과서와 수신서 교과서가 이러한 처분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1880년대 일본이 국수주의, 국가주의 경향이 고조되었고 유교적 도덕을 근대적으로 변용하여 절대 주의국가에 부합되는 국민윤리로 만들고자 하여서<sup>42)</sup> 도덕적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 헤르바르트학파의 교육론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sup>43)</sup> 그래서 이 시기의 소개된 서양의 교육학은 페스탈로찌의 교육사상보다는 주로 헤르바르트학파의 일원이었던 라인(W. Rein)의 교육론이 통용되었다.<sup>44)</sup> 이러한 교육론을 도입한 이유는 일본 교육 학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교육학 교과서와 논문은 서로 비슷한 체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육학 교과서는 대체로 총론(서론), 교육목적론, 방법론 및 교육제도론으로 이어지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sup>45)</sup>

총론 또는 서론에서는 교육의 의의, 교육의 필요성, 교육의 한계, 교육학의 성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목적론에서는 교육의 목적, 교육사조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방법론에서는 지육(교수론), 덕육(훈육론 혹은 훈련론), 체육(양호론)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마지막 부분은 학교의 종류, 학교제도, 교육의 종류,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46)</sup>

42) 위의 책, 117.

43) 위의 책.

44) 위의 책.

45) 위의 책, 111.

46) 위의 책, 115.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사범교육학』과 『교육학』, 『간명교육학』은 모두 이같은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헤르바르트학파의 교수방법론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범교육학』의 저자 윤태영(尹泰榮)은 한성사범학교 속성과(1897), 관립일어학교(1900), 법관양성소(1904)를 졸업하고 1904년부터 법관양성소 박사, 교관, 법무 법률기초위원, 상업회 회원을 지냈다.<sup>47)</sup> 윤태영은 『사범교육학』 이외에 『중등지문학』(1907), 『식물학교과서』, 『한문학교과서』(1907)을 번역 출판했다.<sup>48)</sup>

『사범교육학』에서 의 체제 및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범교육학』은 교육의 목적을 미숙한 개인들에게 장래 생활을 준비시키는 것과 원만한 인격을 발육시키는 것이며<sup>49)</sup> 이는 원만한 인격과 도덕성의 함양이라는 것이다<sup>50)</sup>. 여기서 도덕성 함양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라는 헤르바르트 학파의 교육 목적관을 만날 수 있다. 윤태영의 『사범교육학』은 교육학을 교육사, 이론교육학, 특수교육학으로 나누고 협의의 이론교육학은 교육목적에 이야기하고, 그 실행을 지도함으로 궤범과학(軌範科學)의 성질이 있으나 그 주지는 심리학, 윤리학, 사회학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이용하는 응용과학이자 혼합과학으로 보았다.<sup>51)</sup> 그의 책 제1편 서론 6장 교육학의 성질 및 타 학과의 관계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학 및 철학이요”, “교수법에 대해서는 심리학 및 논리학이요”라고 윤리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궤범과학은 우리들에게 대하여 모종의 궤범을 주고자 하는 학과이니 윤리학과 미학과 논리학

47) 위의 책, 102.

48) 위의 책, 104.

49) 윤태영, 『사범교육학』 (경성: 보성관, 1907), 25.

50) 위의 책, 26.

51) 위의 책, 20;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123.

이 선악과 미추와 진위의 궤범을 부여한다”<sup>52)</sup>고 한다. 제3편 교수론 제1장 교수 목적에서 “인간의 주관기능 가운데 정서상 실천기능으로 윤리의식을 설명한다. 윤태영의 역술을 들어보자.

윤리의식에는 종교의식과 같이 찬단과 동정과 실천 3요소가 있으니 판단은 선악정사(善惡正邪)를 식별하는 것이니 심미취미와 동일한 법으로 양성한 것이오 동정에는 개인에 대한 것과 사회국가인류에 대한 것이 있으니 즉 타인과 교락을 꾀하고 社會公共과 이해를 같이하여 일반 행복을 계도하는 욕망이오 즉 판단과 동정으로 행위동작하는 것이 실천이니 인간은 원래 윤리상 生類라, 스스로 도덕에 入하니 니것을 발육하는 도를 헐버트파가 교제라 칭하니라<sup>53)</sup>

윤태영의 『사범교육학』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혼용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오상(五常)과 수신(修身)과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편 교수론 제3장 교재배열 및 통에서는 7세부터 14, 15세까지 교육할 때 이 시기의 초기에는 수신과 독서 등을 가르치고, 윤리는 역사상 사적과 인물을 인하여 도덕상 판단을 명백히 하고 격언교훈의 뜻을 가장 깊게 만들어 아동이 가슴에 품은 명예심과 권세심 등을 선도(善導) 하라고 한다.<sup>54)</sup>

#### 1) 『교육학』(최광옥, 1907)

최광옥은 1904년 숭실중학을 1회로 졸업하고 장응진과 함께 일본 동경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병으로 1906년 7월 귀국한

52) 윤태영, 『사범교육학』, 19.

53) 위의 책, 45-46.

54) 위의 책, 54-55.

다.<sup>55)</sup> 그 후 그는 구국운동에 투신한다. 그는 이미 유학시절에 태극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참여했고 국내에서는 서북학회의 학사시찰위원으로 의주지방에 파견되어 학회의 지교 활동을 지도 감독했다.<sup>56)</sup> 그는 또한 신민회의 주요 간부로서 장응진을 비롯한 6명의 회원을 입회<sup>57)</sup>시켰으며 국권회복을 위한 청년단체였던 신민회 산하 청년학우회의 발기인이기도 하다.<sup>58)</sup> 최광옥은 도산이 매우 아꼈던 청년지사로서 도산은 그를 청년학우회의 모범으로 삼으려 했다.<sup>59)</sup> 그는 1906년 11월 민지계발을 목적으로 황해도에 안악면학회를 조직하고, 구국운동의 연장선에서 면학서포를 설립하여 일본서적을 번역한 『교육학』(1907)을 출판<sup>60)</sup>하였고 그의 저서인 『대한문전』(1908)을 발간하였다. 평양에 사범강습소를 설치했던 최광옥은 안악군에 사범강습소를 설치하고 강습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학』을 세상에 내놓았다. 박은식이 이 책의 서문을 쓰면서 민지를 계발하기 위해 ‘사범의 학 즉 교육학이 필요한데도 사범의 교재가 절무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이 책의 가치를 가름할 수 있다. 도산이 1910년 4월 망명한 후, 그는 한 학기 동안 대성학교 교장직을 맡아 활동하다 신병으로 사망했다.<sup>61)</sup>

『교육학』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 총론 제1장 교수 제2편 목적론 제1장 교육의 목적에서 도덕심을 함양하고, 도덕품성을 도야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3편 방법론 제1장 교수 제1절 교수의 목적에서 헤르바르트의 흥미설(경험, 추구, 심미, 동정, 사회, 종교 등)을 소개하

55) 최이권, 『최광옥 약전과 遺著문제』, (서울: 동아출판사, 1977), 8.

56) 김성학, 『사범교육학』, 109; 최이권, 『최광옥 약전과 遺著문제』, 13-14.

57) 최이권, 『최광옥 약전과 遺著문제』, 16.

58) 위의 책, 16-18.

59) 위의 책, 17.

60) 김성학, 『사범교육학』, 110.

61) 위의 책, 110.

고 제2절 교수의 재료와 교과목을 수신 도덕학, 국어, 역사, 地誌, 산술, 理科, 圖書, 唱歌, 수공, 제봉, 체조 등으로 정하면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교과로 수신, 도덕학을 소개한다. 또한 제2장 훈련 제1절 훈련의 목적에서 훈련을 도덕품성을 도야함에 관계있는 것이며, 교수에 라도 도덕에 관한 지식을 주어야 하고 품성을 도야하고자 힘을쓴다면 도덕품성의 진가는 다만 도덕의 지식만 있지 않고 실행하는 데 있고, 도덕의 원리를 고구하고 많은 서적을 음통하는 자라도 이를 실행하기에 부족하면 배우지 아니한 자와 어찌 다를까라고 적고 있으며 훈련의 목적은 실제 행위할 수 있게 하고(能行實地)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데 있다<sup>62)</sup>고 언급한다.

## 2) 『간명교육학』(유옥검, 1908)

유옥검은 1883년(고종 20) 서울에서 생원 유희준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길준이 그의 큰 삼촌이며, 유성준이 작은 삼촌이다. 그는 1907년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교과서 편찬에 주력하여 많은 교과서를 저술하고 편찬하였다. 역사 교과서 외에도 교수법과 관련있는 교육학에 관한 저술도 많다. 근대적 교육 효과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학과 교수법과 관련있는 일련의 저술들을 남겼다. 『간명교육학』(1908), 『소학교수법』(1908), 『서양교수법』(1909)등이 그것이다. 그는 또한 보전친목회 서기· 도서부원, 보성중학교 강사, 기호학교 교사, 휘문의숙 강사, 보성친목회 제술원을 역임했다.<sup>63)</sup>

『간명교육학』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이 책 역시 헤르바르트 학파의 영향하에 있다. 이 책에서는 교육학이 윤리학과 심리학에 의존하고 있지만

62) 최광옥, 『교육학』 (황해도 안악군: 면학사회, 1908), 34-35.

63)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1686> 2023년 12월 15일 접속.

교육학이 직접 윤리학과 심리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sup>64)</sup> 제1편 총론 6장 교육학 及 타학문과의 관계에서 교육학은 사회학, 윤리학·심리학, 생리학·위생학, 역사학, 정치학, 논리학, 심미학 등의 도움을 받는 응용과학이며 규범과학이고,<sup>65)</sup> 특히 교육학은 교육목적을 위해 윤리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교육방법을 위해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역사학도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sup>66)</sup> 제2편 목적론 제1장 교육의 목적에 관한 제주의에서 교육의 목적에 관한 여섯 가지 주의(실리주의, 종교주의, 정치주의, 자연주의, 심미주의, 도덕주의)를 살펴본 다음에 교육의 목적을 도덕주의(칸트, 헤르바르트)에 의존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도덕주의 이는 칸트, 헤르바르트 제씨의 말하는 바니 즉 인생의 가치는 전히 그 도덕적 의지의 견고함에 있는즉 교육중국의 목적은 확고한 도덕적 품성의 양성 즉 덕성의 도야에 있는 것이니 이 주의의 견고한 도덕적 의지를 발달케 함은 실로 교육의 중요한 일(要務)이니, 단지 도덕적 품성은 완전히 발달할지라도 망약 그 신체가 불건전하고 지식이 지극히 몽매하면 어찌 세상에 설수 있을까 우리가 이곳에 도다하여 의심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 ... 要言한 則 諸主義 中에 道德主義를 依함이 多하니 其內容에 至하여 거대한 차이가 有하니라<sup>67)</sup>

제1편 총론 6장 교육학과 타 과의 관계 “교육학과 윤리학의 관계”에서 “윤리학은 인간 행위의 도덕적 판단을 연구하는 것이니 그 대상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니 행위의 외부적 사정이 아니오 그 행위의 동기와

64) 유옥겸, 『간명교육학』 (경성: 우문관, 1908), 28-30; 김성학, 『사범교육학』, 122.

65) 유옥겸, 『간명교육학』, 35-36; 김성학, 『사범교육학』, 122.

66) 유옥겸, 『간명교육학』, 35-44; 김성학, 『사범교육학』, 122.

67) 유옥겸, 『간명교육학』, 50-52.

그 의지의 방향과 정조를 연구하는 것이라. 요언하면 윤리학은 인간의 의지에 관한 과학이니”<sup>68)</sup>라고 하니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총언(總言)하면 윤리학(倫理學)은 심리적(心理的)으로 도덕적(道德的) 판단(判斷)을 하(下)하는 심상(心狀)을 분해적(分解的)으로 연구하고 기차(其次)에 기(其)심적작용(心的作用) 즉(卽) 道德의 判斷의 基礎가 되는 도덕적 감정의 起源 及 種族保持 상(上)에 필요(必要)함을 생기적(生起的)으로 연구하며 역사적으로 도덕적 행위(行爲)가 시대와 처소의 변천(變遷)함을 인(因)하여 其 판단이 상이(相異)할바를 비교 연구하여 其 발달의 법칙을 명료(明瞭)히 하여 여시(如是)히 심리적 역사적 재료를 집(集)한 中으로부터 일정한 理法을 구득(求得)하여 차(此)를 基礎하고 히 一步를 進하여 人間은 반드시 如斯함이 可하다云하는 規範을 入함이 可하니 요컨대 基 경험으로부터 ( )히 推究하여 理法을 入함이 可함이라.<sup>69)</sup>

제2편 목적론 제4장 도덕적 생활에서는 “道德教育이라함은 道德的 品性의 陶冶를 住觀한 者오 國民教育이라 함은 國民的 性情의 作出을 主觀한 者니 此二者에 必要의 知識技能을 授與하고 身體를 修養할질대 余의 云한 바 道德的 生活의 完成과 何가 異하리오” 라고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유교 도덕이 국가주의적 국민윤리로 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2. 1900년대 수신/윤리 교과서

### 1) 『윤리학교과서』(신해영, 1906)

『윤리학교과서』의 편술자인 신해영은 대한제국의 관리(1898년 중추원 의관, 1904년 예식원 참리관·탁지부 참서관, 1906년 학부 편집국장, 1907

68) 위의 책, 38.

69) 위의 책, 39.

년 일본유학생 감독)였고 교육자(사립 광흥학교, 사립 한성법학교 강사, 1905년 사립 보성전문학교 교장, 1906년 관립 한성일어학교장·관립 한성범어학교장·관립 한성사범학교장)였다.<sup>70)</sup> 『윤리학교과서』는 중학교 수업기한 4년을 기준으로 하여, 권1·권2가 상편, 권3앞에 붙어있는 목차를 포함하여 권3·권4가 하편으로 구성되어 총 4권 2책이다.<sup>71)</sup> 신혜영은 『윤리학교과서』의 일러두기에서 이 책이 네 권으로 편성된 까닭을 “이 책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은 책의 본문 외에 『대학』, 『중용』, 『논어』, 『오륜행실도』 등 여러 서적으로부터 오늘날 우리나라의 윤리에 적절한 도덕과 아름다운 말, 그리고 선행을 가려 뽑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sup>72)</sup>라 밝히고 있다. 또한 각 권당 면수가 그리 큰 차이가 없으며 그 정도의 면수를 정한 까닭으로 “한 학년당 한 권을 가르치고자 하기때문에 학년의 수업 시수를 무릇 40시간으로 산정하고 쪽수를 이에 의거하여 제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책의 구성이 상당히 체계적이다.<sup>73)</sup> 차미란은 근대전환기 수신교과서 가운데서 가장 분량이 방대하고 체계 면에서 완성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한다<sup>74)</sup>.

『윤리학교과서』는 1895년 2월 2일 공포된 고종의 「교육조칙(敎育詔勅)」 교육조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3대 기강 즉, 덕양(德養)·체양(體養)·지양(智養)에 따라 “신체의 건강과 지적 능력의 연마 숙달 및 덕성의 함양은

70) 김민재, “『윤리학교과서』 해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3』, 서울: 소명출판, 2011, 38-56.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수신교과서 3』 (서울: 소명출판사, 2011), 39-41.

71) 김민재, “『윤리학교과서』 해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3』, 42;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수신교과서 3』, 58.

72)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수신교과서 3』, 58.

73) 김민재, “『윤리학교과서』 해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3』, 43;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92.

74)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92.

자신을 닦는 방법에 있어서 항상 병행하고 어그러지지 않게 하여서 잠시라도 편중되거나 폐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교육의 이른바 체육體育·지육智育·덕육德育이 곧 이것들이다.”<sup>75)</sup>

〈표 5〉 윤리학교과서 체계와 장·절 구성<sup>76)</sup>

	제목	영역	장·절 구성
권1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	자신	제1장 총론, 제2장 체육, 제3장 친구 습관 근면, 제4장 자제, 제5장 용감, 제6장 학문을 닦음, 제7장 덕을 닦음
권2	가족의 의무	가족	제1장 총론, 제2장 부모에 대한 의무, 제3장 부모의 의무, 제4장 부부의 의무, 제5장 형제자매의 의무, 6장 가족에 대한 의무 제7장 친척 및 주인과 종
		친지	제1장 친구의 의무, 제2장 스승과 제자의 의무
권3	사회	사회	제1장 총론 제2장 사회의 공의(제1절 생명에 대한 의무, 제2절 재산에 대한 의무, 제3절 명예에 관한 의무) 제3장 사회의 공적인 덕(제1절 박애 및 공익, 제2절 예양禮讓 및 예문禮文)
권4	국가	국가	제1장 총론, 제2장 국민의 의무, 제3장 애국심, 제4장 황실에 대한 의무, 제5장 국제 관계의 의무, 제6장 결론

신해영이 편술한 『윤리학교과서』는 근대전환기에 간행된 여느 교과서처럼 개혁 바람의 산물이며 열강의 쇄도에 따른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국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편찬 취지를 두고 있었다.<sup>77)</sup> 이 책은 통감부의 교과서 편찬 방향과 교과서 검정제도가 실시되면서 학부 불인가 교과용 도서가 되어 사용 금지가 되었다.<sup>78)</sup> 『윤리학교과서』의 일반

75)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수신교과서 3』, 61.

76) 김민재의 “『윤리학교과서』 해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3』, 44의 표를 차용했음.

77)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서울: 대한교과서, 2008), 57; 김민재, 위의 글, 45.

78) 김홍수, 박준수, “한국 근대 교과서 편찬과 교과서에 나타난 신문화 수용 실태,” 『인문사

적인 내용 특징을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윤리학교과서』는 권1의 시작에서 도덕 및 윤리학 개념 정의를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학’을 구분해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sup>79)</sup> 또한 책의 제목에 ‘수신’이라는 용어 대신에 ‘윤리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저자가 유교적 윤리의 계승이라는 범주에 머물지 않고 서양의 근대사상과 윤리학적 사유 체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시사한다.<sup>80)</sup>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것을 도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은 우연히 몸으로 행동하다가 마음으로 얻어지는 바가 아니요 반드시 느끼고 깨달으며 이해하는 방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윤리학은 곧 이런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는 주는 학문이다.<sup>81)</sup>

둘째, 이 책에서 저자는 많은 부분에서 공자, 맹모, 주희 등과 한반도의 삼국 혹은 조선 시대의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지만, 서양의 격언이나 위인들을 상당히 큰 비중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유학과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공자와 예수의 격언을 함께 논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그 하나를 치우쳐 폐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한 후에야 비로소 사회에 대하여 완전한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sup>82)</sup>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한다. 저자는 우리의

회교육연구5(2002), 32; 김민재, “『윤리학교과서』 해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3』,” 45.

79) 김민재, “『윤리학교과서』 해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3』,” 45.

80)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94.

81)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수신교과서 3』, 59.

82) 김민재, “『윤리학교과서』 해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3』,” 47.

전통의 미풍을 지켜야 한다 것과 올바른 서양 미풍을 채택하여 본받 것 즉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83)</sup> 차미란은 『윤리학교과서』가 유교적 전통에서 중시되는 덕목과 사회의 공의, 공덕, 애국심, 국민의 의무와 국제관계의 의무 등의 서구 근대사상에 기반한 사회적 덕목이나 가치를 다룬다는 점에서 근대전환기 수신 교과서에서 나타난 새로운 부분이며 전통적 유교윤리와 근대적 시민윤리의 병존이 나타난다고 본다.<sup>84)</sup> 또한 『윤리학교과서』에는 그 양자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고자 한 저자의 노력이 잘 나타나 있다고 평한다.<sup>85)</sup>

셋째, 『윤리학교과서』는 학제적 성격이 강한 책이다. 이 책은 순수한 윤리교과서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교과목에서 배워야 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김민재는 이런 모습을 “『윤리학교과서』가 그 설명을 개인에서 시작해서 가족과 친지 및 사회와 국가에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도덕 및 윤리를 두루 설명하려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한다.<sup>86)</sup>

넷째, 국가 사회적 덕목은 전통시대 수신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던 내용이다. 충군에 대한 덕목은 강조되었으나 국가 개념과 단체나 지역에 대한 개념 및 사회와 공의 등과 관련된 덕목이 강조되는 것은 근대전환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부분<sup>87)</sup>이며 권 3과 권 4에서 다루는 사회의 공의, 공덕, 애국심, 국민의 의무와 국제관계의 의무 등을 개념들과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sup>88)</sup> “자국의 관념은 다른 국가들을 대해야 비로소 생기는 것”

83) 위의 글.

84)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94.

85) 위의 글.

86) 김민재, “『윤리학교과서』 해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3』,” 48.

87) 송인자, “개화기 남녀 수신교과서의 지향점 분석”, 『한국문화연구』 13(2007), 144.

88)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94.

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sup>89)</sup> 이것은 기존의 해금의 입장을 탈피하여 국제관계 속에서의 국가와 사회 개념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sup>90)</sup>

## 2) 『고등소학수신서』(휘문의숙, 1907)

휘문의숙은 을사조약이후 국권회복운동의 하나로 교육 진흥이 확대되고 신교육이 가열되던 시대 상황 속에서 1906년 민영휘閔泳徽(1852-1935)가 설립한 민족주의 계열 사립 중등학교이다.<sup>91)</sup> 휘문의숙은 독자적으로 교과서를 간행하기 위해 ‘휘문관’이라는 설치하였다. 휘문관에서 발행한 수신교과서로는 『중등수신교과서中等修身教科書』(1906)와 『고등소학수신서高等小學修身書』(1907), 『보통교과수신서普通教科修身書』(1910)가 있다.<sup>92)</sup> 『중등수신교과서』는 휘문의숙의 저학년, 『고등소학수신서』는 고학년의 수신 교과를 위하여 제작되었다. 근대전환기의신교육이 실시되면서 필요로 하는 교과서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편찬,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휘문의숙, 양정의숙, 보성중학교와 송실중학교, 송실대학을 비롯한 기독교계열 학교 등에서 이러한 교과서의 자체 발행이 많았다.<sup>93)</sup>

장지연은 1906년 6월 이후 휘문의숙 휘문관 편집원 지냈고 1907년에는 휘문의숙 숙장(塾長)이 재임하며 경영하였는데 『고등소학수신서』는 이때 편찬한 것이다.<sup>94)</sup> 휘문의숙을 설립한 민영휘는 『중등수신교과서』(1906)

89) 김민재, “『윤리학교과서』해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3』,” 49.

90) 위의 글.

91) 차미란, 위의 글, 195; 서경희, “『고등소학수신서』해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교과서 2』 (서울: 소명출판사, 2011), 198.

92)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94.

93) 서경희, “『고등소학수신서』해제,” 198.

의 서문에서 중등수신용 ‘교과서’를 새로 편찬하는 이유를 “수신서로서는 육경과 『논어』, 『맹자』가 남아 있어서 충분한데 ...그 책들이 분량이 많고 뜻이 방만하여 여러 해 동안 전념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방향을 얻고 단서를 찾을 수가 없다”<sup>95)</sup>고 비효율성에서 찾고 있다.<sup>96)</sup>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시대가 요구하는 ‘수신’의 가치와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sup>97)</sup> 장지연 재임시 발행된 교과서들은 여러 면에서 구국운동과 계몽운동에 헌신하던 그의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sup>98)</sup> 1906년과 1907년에 휘문의숙 편집부에서 발간된 수신서와 독본 등의 교과서는<sup>99)</sup> 1909-1910년 통감부의 교과서 편찬 방향과 교과서 검정제도가 실시되면서 학부 불인가 교과용 도서가 되어 사용 금지로 지정되었다.<sup>100)</sup> 이를 통해서 휘문의숙편집부의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sup>101)</sup>

『고등소학수신서』는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도입부와 가정의 주의(注意), 학교에 대한 본무(本務), 타인에 대한 주의, 자기에 대한 주의, 덕성에 대한 주의, 인격에 대한 본무, 수양에 대한 본무, 국민에 대한 본무 등의 9개의 큰 주제로 분리할 수 있고 각 주제에 대해 9개 과에서 16개의 과로 나누어<sup>102)</sup> 전통적인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서양의 근대적 ‘국가’와 ‘사회’ 개념을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sup>103)</sup> 이 책의 전체 내

94) 서경희, “『고등소학수신서』해제,” 198-199.

95)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수신교과서 2』, 46.

96)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95.

97) 위의 글, 198.

98) 서경희, “『고등소학수신서』해제,” 199.

99) 위의 글.

100) 김홍수, 박준수, “한국 근대 교과서 편찬과 교과서에 나타난 신문화 수용 실태,” 32.

101) 서경희, “『고등소학수신서』해제,” 199.

102) 위의 글.

103)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96-197.

용은 총 120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소학수신서』는 전체적으로 효제 충신의 전통적인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의 덕성 함양과 관련된 내용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과 사회인의 역할에 대한 내용, 신문물과 특히 문명화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항목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sup>104)</sup>

『고등소학수신서』는 『중등수신교과서』와 유사한 체제와 내용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학년 대상으로 편찬된 것인만큼 그 목표와 내용 항목의 비중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등수신교과서』와 비교하여 『고등소학수신서』는 애국심과 자치 독립 등 근대전환기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내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소학수신서』는 『윤리학교과서』에 비해 ‘윤리학’에 대한 뚜렷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다만 책의 부분인 제120과 ‘총론’에서 ‘도덕’의 개념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sup>105)</sup>라고 정의하고 “이를 수양하는 기술이 없으면 능히 실행할 수 없으므로, 느껴서 깨닫고 깨달아 이해하는 방법을 두루 기술하여 배우는 자의 교과에 갖추게 하였으니” 수신에 있어서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106)</sup> 이 책에서 말하는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수신의 시작과 근본이라는 것이다.<sup>107)</sup> 그리고 “충성과 효도는 인륜 가운데 큰 것”이며, 한국의 교육을 위해 특별히 저술한 강령으로서 “형제나 부부, 어른과 아이, 친구에 대한 도리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도 순서에 따라 대략 갖추었으니, 학자로 하여금

104) 서경희, “『고등소학수신서』해제,” 201.

105)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수신교과서 2』, 304.

106) 위의 책.

107)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99.

선을 기르고 악을 제거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sup>108)</sup>라고 끝을 맺는다. 차미란의 평가처럼 『윤리학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고등소학수신서』의 집필자 또한 전통적 유교윤리와 근대적 시민윤리의 공존과 조화를 꿈꾼 것을 알 수 있다.<sup>109)</sup>

### 3) 『초등소학수신서』(유근, 1908)

유근柳瑾(1861~1921)은 대한제국기 황성신문을 창간하고 대한자강회 평의원·제술원, 대한협회 평의원, 황성신문사 사장, 휘문의숙 숙감·숙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조선광문회에도 참여하였고, 1909년 단군교에 가입하였다. 그는 대중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으며, 1920년 4월 『동아일보』 창간때 양기탁과 함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언론인이자 애국계몽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초등소학수신서』는 유근이 저술하여 1908년 광학서포에서 발간하였다. 그는 동아시아 수신 교육의 대표적인 교과서인 『소학』의 핵심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학동들로 하여금 힘을 길러야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모욕을 당하게 되는지를 삽화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sup>110)</sup> 이 책의 사용처는 앞서 다룬 『고등소학수신서』의 경우와는 달리, 어느 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되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차미란의 추측처럼 민족주의 계열의 사립 보통학교에서 수신 교과 교재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sup>111)</sup>

이 책은 소학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60개의 과(제1과 ‘살아갈 방법을

108)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수신교과서 2』, 205.

109)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99.

110) 박병기, “『초등소학수신서』 해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수신교과서 1』 (서울: 소명출판사, 2011), 86.

111)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99.

생각함(謀生), 제60과 ‘의로운 벌레(義蟲)’로 분류하여 제시<sup>112)</sup>하고 있는데, 각 과마다 삽화가 들어 있고, 각 과의 끝에는 본문의 내용을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를 질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sup>113)</sup> 이를 통해 덕목 중심의 접근과 함께 주제 중심의 접근법도 병행하면서 단순히 유교의 덕목(‘효도’-제6과 12과, ‘우애’제26과, 제42과)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양의 근대적 사회사상(‘자유’ 제18과와 ‘자주권’ 제25과, ‘공익’ 제37과, ‘공덕심’ 제38과)과 정치 이념을 비중 있게 다룬다.<sup>114)</sup>

이 두 가지 범주 이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인 것이 국력 배양의 중요성, 모든 국민이 지혜와 힘을 길러야 개인이 모욕을 당하지 않고 국가가 굴욕당하지 않는다는 민족주의적 가치관을 세우기 위한 내용이다.<sup>115)</sup>

『초등소학수신서』의 내용을 대체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sup>116)</sup> 역시, 『윤리학교과서』와 『고등소학수신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수신 교육에서 강조되던 유교를 사상적 배경으로 삼아 도출된 덕목과 함께 서양의 근대 국가 이념과 민주주의의 핵심 덕목을 다루는 내용이고,<sup>117)</sup> 둘째는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견인하기 위한 실천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내용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세계사의 흐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고 도덕교과서로서의 체계성과 완성도가 높다는 점이다.<sup>118)</sup> 다시 말해 이 책은 대한제국에서 일제 식민지 통치로

112) 박병기, “『초등소학수신서』 해제,” 87.

113)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199-200.

114) 위의 글, 201.

115) 박병기, “『초등소학수신서』 해제,” 88;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201.

116) 박병기, “『초등소학수신서』 해제,” 89.

117) 박병기, “『초등소학수신서』 해제,” 89;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202.

넘어가던 20세기 초반 나라가 처한 위기를 교육을 통해 극복하려 했던 구체적 산물이며 중요한 실천<sup>119)</sup>이며 이 수신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후의 일제 강점기 동안 혹독한 식민지 통치에 맞서서 저항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의 실마리를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IV. 나오는 말

본 연구는 교육학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양 윤리학과 교수법에서 다루는 윤리 개념과 도덕의식, 교육학과의 관계와 근대 전환기 ‘수신서’의 특징인 전통적 유교윤리와 근대적 시민윤리의 공존과 조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육의 공간이 근대 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에 서양 교육 사상이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는데 그것은 교육의 목적을 윤리학으로부터 추론한 헤르바르트 학파의 교육학이었다. 이는 윤태영의 『사범교육학』에서 교육의 목적은 “미숙한 개인들에게 원만한 인격을 발육시키고 도덕성의 함양이라는 개인 목적에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물 육성이 강조되고 교육의 목적은 도덕성 함양이다”라는 관점이 들어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교육사상은 일본정부가 유교적 도덕을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추구했던 절대적 국가주의에 부합하는 국민윤리로 만들기 위한 목적에 수입된 것이다. 이는 식민지 조선에 제국의 수신서를 통한 국민교육의 실마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전환기 민간에서 편찬된 수신서는 전통적인 수신서의 내용과 체계를 계승하면서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하여 민족과 국가를 위기에

118) 박병기, “『초등소학수신서』 해제,” 91;

119) 박병기, “『초등소학수신서』 해제,” 91;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202.

서 구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sup>120)</sup> 특히 대한제국말기에 발간된 수신 교과서들에서 유교적 수신 교육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세계 질서 개편에 따른 서양의 근대 사회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국가 존립의 위기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구국운동의 치열한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같이, 근대전환기 교육학 교과서와 수신 교과서는 교육의 근대 이행의 모습과 근대적 학제와 교과교육 체제의 도입이라는 외면의 변화와 거대한 물결처럼 몰아친 이질적인 서양 문명, 그리고 국내 정치세력의 분열, 혼란한 국제정세로 인한 국가 존립의 위기 등의 한꺼번에 몰려온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교육구국운동의 차원에서 편찬되고 발간되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교육의 방향을 단순히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애국심을 심어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전반 서화로 갈 것인지, 일본을 통해 유입되는 간접적인 서구화인지 아니면 아직은 유교적 가치관을 토대로 서양식 근대국가로 이행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이 연구는 전반 서구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 현실에서 갈등과 충돌의 현장인 윤리, 도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소의 실마리를 근대적 학교 제도의 성립과 함께 새로 등장한 교육학과 더 이상 유교적 의미를 담기 벅찬 ‘수신’과 ‘윤리’가 교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통적 ‘수신’과 ‘윤리’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였다. 110년 전 국가의 위기가 몰려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몸무렵쳤던 앞선 지식인들의 고민처럼 기후 위기, AI시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한계에 부딪힌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교육과 윤리(도덕) 교육이 또 다른 대안적 공간에

120)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202-203.

서 가능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근대전환기 교육학과 ‘수신’ 교과서 편찬에 나섰던 당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조명받을 수 있고 당대의 교과서가 제기한 물음과 교육과제들이 의미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대혁. “도덕교육의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 탐색의 가교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문화연구원, 「근대 수신교과서 1·2·3」(소명, 2011) - .” 『한국문화연구』 21(2011), 305-311.
- 古川 昭, 이성옥 역.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김민재. “근대 수신 교과서를 통해 살펴본 ‘도덕과교육’의 연속성 - 「윤리학교과서」와 「고등 소학수신서」를 중심으로 - .” 『한국문화연구』 19(2010), 85-127.
- \_\_\_\_\_. “개화기 ‘학부 편찬 교과서’가 지니는 교과용 도서로서의 의의와 한계.” 『이화사학연구』 42(2011), 179-217.
- \_\_\_\_\_. “근대 초등용 수신 교과서에 나타난 가치교육의 변화 연구.” 『초등도덕교육』 36(2011), 255-284.
- \_\_\_\_\_. “「윤리학교과서」 해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3』.” 서울: 소명출판, 2011, 38-56.
- \_\_\_\_\_. “근대계몽기 초등용 수신교과서의 도덕교육적 시사점 연구.” 『윤리교육연구』 31(2013), 161-138.
- \_\_\_\_\_. 『학교도덕교육의 탄생-1894~1910년 근대계몽기의 수신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 케포이북스, 2014.
- 김성학.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서울: 문음사, 1996.
- 김홍수·박준수. “한국 근대 교과서 편찬과 교과서에 나타난 신문화 수용 실태.” 『인문사회교육연구』 5(2002).
- 박병기. “수신서 장르 해제.” “「초등소학수신서」 해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1』. 서울: 소명출판, 2011.
- 서경희. “「고등소학수신서」 해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2』. 서울: 소명출판, 2011.
- 서재복. “한국 개화기 근대학교의 교육이념 연구.” 『교육종합연구』 7/2(2009), 90.
- 송인자. “개화기 남녀 수신교과서의 지향점 분석.” 『한국문화연구』 13(2007), 113-154.
- 신혜영. 『윤리학교과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3』. 서울: 소명출판, 2011.

- 양일모. “유교적 윤리 개념의 근대적 의미 전환 - 20세기 전후 한국의 언론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 「철학사상」 64(2017), 3-29.
- 오지석. “오랑캐에게 예절을 배우다! 서양 기독교윤리에 대한 무시·배척을 넘어 서.” 「문화와 융합」 42/10(2020), 131~152.
- 유 근. 『초등소학수신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1』. 서울: 소명출판, 2011.
- 유옥겸. 『간명교육학』. 경성: 우문관, 1908.
- 윤태영. 『사범교육학』. 경성: 보성관, 1907.
- 이명준. “개화기 전후의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사적 고찰.” 「교육철학」 43(2008), 65~87.
- 이행훈. “1900년대 전후 도덕 개념의 의미장-수신, 윤리교과서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2(2013), 161~196.
- 이혜경. “근대중국 윤리개념의 번역과 변용.” 「철학사상」 37(2010), 95~129.
- 조연순 외. 『한국 근대 초등교육의 발전』. 서울: 교육과학사, 2005.
- 차미란. “근대 개화기 서양 윤리학의 수용과 유교윤리의 변용: 1900년대 수신 교과서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69(2020), 185~208.
- 최광옥. 『교육학』. 황해도 안악군: 면학서회, 1908.
- 최이권. 『최광옥 약전과 遺著문제』. 서울: 동아출판사, 1977.
- 허재영. “근대 계몽기 교과서 해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1』. 서울: 소명출판, 2011, 7-15.
- 휘문의숙(1907), 『고등소학수신서』, 한국문화연구원 편역, 『근대 수신 교과서 2』. 서울: 소명출판, 2011, 207-305.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1686> 2023년 12월 15일 접속.

논문투고일: 2023년 11월 15일

심사개시일: 2023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2일

---

• 국 문 초 록 •

---

이 연구는 한국근대전환기 학문 형성과정에서 서양에서 유입된 교육체제와 새로운 지식 유입으로 형성된 ‘도덕·윤리’사이의 어떤 혼종이 있었는지를 근대전환기 교육학 교과서인 최광옥의 『教育學』과 유옥겸의 『簡明教育學』, 윤태영의 『師範教育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동시대에 있었던 『수신교과서』들을 비교하며 전통사회에서 해온 소학(小學)과 수신修身, 강상綱常을 중심으로 해온 것과는 다른 윤리·도덕 교육의 흔적을 추적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근대전환기의 문화적 변동의 정점이었던 유교적 전통과 새로운 서구 사상의 접점의 모습을 단순히 일방적 유입과 이식이 아니라 주체적 수용과 변용이 있었다는 것을 추적하였다. 이 연구는 근대전환기 학제에 따른 교과서에서 서양 교육학의 도입과 전통적 유교의 수신 개념을 담은 또 다른 의미의 ‘수신’·‘윤리’ 개념을 도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주제어:** 근대전환기, 교육학 교과서, 수신교과서, 도덕, 윤리

---